



추억의 거리 충장로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

동구 7080충장축제

400만명. 올해 열린 광주 충장로 축제 방문객수다. 광주의 중심가인 충장로를 주제로 열리다보니 지역민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 특히 올해에는 축제기간동안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해 외지 관광객이 30여만명이나 늘어나는 효과도 거뒀다.

계 즐겁게 하다보니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특히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 등 추억을 소재로 한 독특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에는 '추억 & Asia(아시아)'를 주제로 중국, 일본 등 14개 국가의 문화·예술 공연팀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다방 등 옛 길거리를 재현·조성한 '추억의 거리'도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추억콘서트와 7080포크송 페스티벌, 무등가요제, 추억의 동창회, 봉숭아물들이기, 딱지치기 놀이마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충장로 축제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장르나 형식 등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축제기간동안 누구나 축제에 참여해 할

광주극장 앞 300여m 골목에 1970년대와 80년대의 우체국, 의상실, 이발관, 만화방,

광주 동구청 박창민 문화예술 담당은 "구청 주도가 아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의 축제를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까지 살리는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체험도 웰빙... 가족·연인과 함께 건강여행

보성 다향제 녹차대축제

보성 다향제 녹차대축제는 보성을 녹차의 대표고장으로 만들어낸 일등공신이다. 매년 첫차(茶)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 열리는 녹차대축제는 보성녹차 홍보는 기본이고, 차 문화 보급 및 차 산업육성,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 참여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제 38회를 맞은 올해에는 가족 관광객 유치목표로 전국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녹차관 재현을 아이디어 경진대회, 다향 백일장 등도 마련했다. 보성 녹차대축제는 연간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있다. 보성군은 5월에 열리는 녹차대축제의 성공을 밑거름으로, 연말이 되면 또 한번 보성 녹차밭에서 '보성차밭 빛축제'를 개최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올해에도 오는 14일부터 2013년 1월 27일까지 45일간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일원에서 '보성차밭 빛축제'를 개최한다. 보성군은 차밭 농성에 빛 조명과 파이프, 차광막, 비닐 등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가로 200m·세로 300m의 세계 최대 크기의 연화장도 만들 계획이다.

체행행사도 웰빙시대에 맞춰 찾았달기와 차만들기, 녹차뷰티 건강미용 체험 등 건강

보고 싶은 국내 여행지로 지목할 정도로 보성은 유명한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보성군 노정이 관광진흥담당은 "녹차대축제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은 국내 여행지로 지목할 정도로 보성은 유명한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문화 대표축제로 만들어 낼 것"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

"국내를 뛰어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총장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효성 광주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11일 "오는 2014년 동구 도심에 들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총장축제를 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을 대표하는 전시·공연·체험·볼거리·먹거리·문화·이벤트 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총장축제가 '아시아의 문화 융광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면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명성에 걸맞게 지역 대표축재인 총장축제의 격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축제의 최종목표는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면서 "총장권역 상권 활성화 등 침체된 동구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총장축제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茶문화 전세계에... 명품축제로 품격 높인다"

정중해 보성군수

"녹차를 뛰어넘어 전 세계 모든 차(茶)를 대표하는 축제로 도약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중해 보성군수는 11일 올해 38회를 치른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녹차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축제에서 벗어나 전 세계 차 문화를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품격을 높여겠다"

고 말했다. 정 군수는 "오래 역사를 가진 보성 녹차대축제는 이미 오래전에 국내 대표 축제가 됐다"면서 "앞으로 세계인이 아시아의 차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성 녹차대축제를 찾도록 프로그램을 개발·구성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녹차대축제를 통해 보성에서 전 세계의 차 명인들이 모여 국가별 대표차를 소개·선발·시음·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보성군이 전 세계의 차를 대표하는 지역이 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느림·여유가 있는 아름다운 청산도에서 심포를

완도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여객선을 타면 1시간 가까이 걸려야 도착하는 섬 청산도에 '슬로우걷기 축제'가 열리는 봄이면 7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한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만 80억대에 이른다.

어느 느림의 여유를 즐기는 게 바로 축제의 목적이다. 청산도는 지난 2007년 12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슬로시티의 철학처럼 여유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느림의 미학을 담아 '슬로우걷기 축제'가 시작됐다.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매년 4월 한달간 축제가 열린다. 인위적인 건축물도 설치되지 않는다. 체험행사도 슬로우푸드 먹기, 서편제 제연 등이 있을 뿐이다.

슬로우걷기 축제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청산도에 조성된 11개 슬로우길(총 42.195km)을 걷는 게 가장 큰 프로그램이다. 슬로우길은 아름다운 섬 풍경에 절로 취해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우걷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길을 걷다보면 청산도가 품고 있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축제하면 음악이 울려 퍼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연상하지만, 청산도의 슬로우걷기 축제는 정반대다. 바쁜 일상에서 벗

완도군 강혁필 관광정책 담당은 "청산도가 가진 자연의 소중함을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과 함께 느끼고, 지키는 게 축제의 기본 목표"라고 밝혔다.

한여름 무더위 식힌 신나는 '물놀이 한판'

장흥 정남진 물축제

한여름 가장 덥고, 물이 필요할 때 장흥에서는 '물놀이한판'이 벌어진다. 장흥군은 매년 여름 1급수인 탐진강 물을 활용한 '정남진 물축제'로 90만명이 넘는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물축제에 따른 직·간접 경제 효과도 무려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장흥군은 추산하고 있다. 인구 5만명이 안 되는 시골 자치단체에서 축제 하나로 대박을 터

트리고 있는 것이다. 장흥 물축제는 무더위를 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탐진강에서 단체로 물싸움을 벌이는 것은 기본이고,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장흥 한약초로 만든 천연무지개 풀장에서 물놀이하기 등 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5500만원을 모았다. 장흥군은 이 같은 축제의 성공이 기반이 돼 정부에서도 생산성을 인정하는 자치단체가 됐다. 장흥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 16개 시·도가 공동주관하는 '제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정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전 행정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유일한 평가로, 장흥군은 탐진강 등 자연공간 향상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연 자체가 자원... 개발보단 보존 중요"

김종식 완도군수

"국내에서 축제기간(1개월)은 가장 길면서 비용(1억5000만원)은 가장 적게 드는 축제가 바로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입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11일 슬로우걷기 축제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산을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축제를 망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청산도는 자연 그 자체가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청산도 만큼은 개발이 아닌 이러한 자연자원을 지키는 데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광객들이 섬에서 먹고, 자고, 특산물들 사가면서 소득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앞으로 청산도에 있는 자연자원을 브랜드화해 소득창출을 비롯한 청산도를 알리는 도구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외지 관광객 유치위해 홍보활동 강화"

이명흠 장흥군수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물을 주제로 한 정남진 물축제의 발전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테마로 한 정남진 물축제를 직접 기획·주최한 이명흠 장흥군수는 11일 물축제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물가지고 무슨 축제를 하나, '더운 여름에 누가 축제에 오느냐' 등의 반대 여론이 많았다"면서 "꼭 성공한다는 확신 아래 직원들을 설득시켰고, 결국 전담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름축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남진 물축제는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한 관광축제 브랜드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축제기간에 만 9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장흥을 방문했다"며 "이들이 장흥한우 등 지역 특산물을 먹고, 구입하는 등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을 줬다"고 덧붙였다.

